

전국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

권 범석 | 전국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회장

대학 입시 전형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그 유형과 특성이 수시로 변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MB 정권의 영향으로 대학의 자율화, 대입 전형의 선진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전형의 패러다임 흥수 속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입학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은 커지고 있으며, 그 노력의 중심에는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이하 '전입협')가 있다.

색하는 실천적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각 학교들의 입학 전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입시제도를 모색함으로써 현 입시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입학 전형 모델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전입협이 입학관리자 간의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 입학제도 도입을 위한 한걸음」

「이젠 입학 전형도 연구를 통해 만들어 진다.」

전입협은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과 대학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에 따라 변화무쌍한 입시제도 환경에서 학생과 학교가 서로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의 대학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입협에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유럽 선도 대학들의 선진화된 제도를 학습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각 대학입학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유럽으로 연수 파견하고 있다.

2003년 전입협 2대에 영국의 Oxford 대학, 프랑스 가톨릭 대학, 이탈리아 Sapienza 대학, 미국의 Yale대학, Havard대학, MIT대학, York 대학(캐나다)에 해외 연수 파견을 시작으로, 전입협 9대인 지금까지 스위스, 체코, 그리스, 터키,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대학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연계, 외국 대학의 선진 입시제도 도입 등의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역시 이러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기준의 정량적이고 교과적이기만 했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정성적이고 비교과적인 부분 즉, 성적을 포함한 개인의 창의성,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선진 대학 입시제도 연수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의 교과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학 전형 담당자들의 해외 연수 파견은 입학 전형 연구와 더불어 입시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은 한 번쯤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 대해 들어보고 직접 참여해보았을 것이다. 수험생들의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학의 입시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상담을 해준다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시 전문가들이란 누구일까? 그렇다. 바로 전입협 회원들이다.

전입협에서는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운영할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가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창구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 결산 현황분석, 지도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박람회의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대학 입시 원서를 접수하는 일이 매우 손쉽게 변했다. 입학 원서 인터넷 100% 접수, NEIS의 활용 등으로 수험생들은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는 일이 없이 클릭 한번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손쉬운 원서 접수가 비단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입협이 생겨난 이래 가장 처음 시행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입학 원서 인터넷 100% 접수였고, NEIS를 통한 학생부의 활용

도 전입협이 교육과학기술부, 전교조 등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냈기에 가능했던 성과 중 하나였다.

전입협은 이 밖에도 추가 합격자 공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로 회원 대학 간의 정보 교환 활성화 및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2002년 전국 대학교 교무행정 관리자 협의회의 입학 행정 직무 분야에서 분리되어

구성된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과 대학 교육의 발전, 회원대학 간 정보 교환 및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内外적 활동을 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미래 대학 입시 폐마다 입의 결정권을 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권범석 |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회장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취득하고, 경희대학교에 입사, 동 대학교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입학기획관

리처에서 입학업무 총괄, 2008년도부터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에서 총무, 회장으로 활동.